

기계번역에 나타난 한일번역 양상 — 부정표현을 중심으로 —

최 영 수

(우송대 · 충남대 박사과정)

1. 연구배경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적, 형태적으로 아주 유사한 언어이기 때문에 기계번역의 가장 좋은 실험대상이 된다. 기계번역시스템은 현재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실용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오류로 인해 성과는 부진하며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다량의 번역이 필요한 기술번역, 신문기사 등은 1차적으로 기계번역을 통해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번역사가 부문적인 오류를 수정해 번역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표현이 단조로워지고 번역사는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번역된 문장의 영향을 받아 번역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번역학은 여러 형태의 표현범주를 갖는데 그 표현범주 중 하나가 행동자와 주체의 범주이다. 행동자의 범주는 번역학에서 기계번역 대 인간에 의해 실현

되는 번역의 대립형태로 제시된다. 이제 기계번역은 인간에 의한 번역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되면서도 번역사와 대립의 대상이 되고 있다.¹⁾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1) 젊은이들도 우는 소리만 하지 말고 can-do-spirit 정신에서 배워야 한다.²⁾ (동아 2012.1.12)

- a. 若者たちも右はことをいわずにcan-do-spirit精神で習わなければならない。
- b. 若者も弱音ばかり吐かず、can-do-spirit精神から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

(2) 상대방으로선 별로 해 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는 질문일 게다.

(중앙 2011.12.28)

- a. 相手方としては別にしてみたことも、受けてみたこともない質問だろう。
- b. 相手にしてみると、尋ねたことも、受けたこともない質問かもしれない。

(1)a, (2)a는 기계번역³⁾에 의한 것이고 (1)b, (2)b는 번역사가 번역한 문장이다. (1)의 ‘우는 소리만 하지 말고’를 (1)a에서 ‘右はことをいわずに’로 번역되는 어휘적, 의미적, 문법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a는 서술어 부분을 원문 그대로 긍정문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2)b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부정문으로 의미해석을 하고 있다.

일본어에서는 보통 직접적인 표현을 회피하여 한국어의 ‘~해야 한다’는 ‘~すべきである’가 아닌 ‘~なければならない’로 이중부정을 사용해 긍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용사에 있어서도 ‘맛있다’의 부정을 반대어인 ‘맛없다’로 표현하지 않고 ‘맛있지 않다’로 ‘좋다’도 ‘싫다’가 아니라 ‘좋지 않다’로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어의 경우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의미상 어디까지가 부정문이며

1) 김진원, 최준기, 옴김(2006) 『번역의 이론과 방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p127

2) 예문 중 a.는 기계번역문, b.는 번역사에 의한 번역문을 의미한다.(이하 동일)

3) 번역소프트는 인터넷상에서도 여러 종류가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成田一(1996) 「言語類型と機械翻訳」에서 일한/한일 번역소프트 중 검증된 소프트라 지적한 바 있는 KODENSHA의 j·Seoulv8 를 번역소프트로서 사용하였다.

부정표현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내일 학교에 간다’를 형태상, 의미상으로 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표1〉 ‘내일 학교에 간다’의 부정문과 부정표현

한국어 원문	일본어 번역문	재 번역문
내일 학교에 간다.	明日学校に行く。	내일 학교에 간다.
a.내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a)明日は学校に行かない。	㉠내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b.내일은 학교에 안 간다.	(b)明日は学校に行かない。	㉡내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c.내일은 학교에 못 간다.	(c)明日は学校に行けない。	㉢내일은 학교에 갈 수 없다.
d.내일은 학교에 가지 않겠다.	(d)明日は学校に行かない。	㉣내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e.내일은 감기가 심해서 안 되겠다.	(e)明日は風邪が激しくてならない。	㉤내일은 감기가 심해서 안 된다.
f.공부하기 싫다.	(f)勉強したくない。	㉦공부하고 싶지 않다.
g.내일은 부산에 가야 한다.	(g)明日は釜山(フサン)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내일은 부산(釜山)에 가지 않으면 안된다.

예문 e,f,g는 ‘내일은 학교에 간다’의 부정문이라 보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정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明日は学校に行かない’는 ㉠, ㉡, ㉣ 모두 ‘내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로 번역이 된다. ‘~안간다’, ‘~못간다’, ‘~가지 않겠다’가 모두 ‘行かない’로 일괄 번역되었다. 이 경우 번역사는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수정을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부정문은 서술어를 부정 형태로 바꾸면 간단하게 부정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국어의 의미표현을 무시한 채 직역을 하게 되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되고 의사소통함에 있어 오해가 생기기 쉽다. 기계번역을 통한 번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음이의어 등의 형

대상 번역오류라 할 수 있지만 의미상, 문맥상의 번역오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의 부정문을 일본어로 번역했을 경우 기계번역문과 수정된 번역사의 번역문의 번역양상을 비교하고 용례분석을 통해 한일 양국어의 부정문의 의미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실용적인 기계번역시스템은 번역속도, 번역품질, 수정과 부분적인 의미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으로 우수한 기계번역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또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번역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한국어와 일본어의 기계번역에 관한 연구로는 成田一외 2인(1996)의 「言語類型と機械翻訳」이 있다. 언어유형과 언어처리를 각 언어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특히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 기계번역은 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대응을 하고 있다. 일한어 번역⁴⁾에서는 ‘형태소분석에서의 오류’와 ‘다의를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오역의 원인이며, 한일어 번역에 있어서는 술어부정문, 어스펙트형식, 경어와 복합형식 즉 ‘像は鼻が長い’와 같은 2중주어문 등도 완전한 번역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의 ‘の’의 상당수가 한국어의 ‘것’으로 번역되고 있는 점, ‘ところ’이 한국어에서는 장소의 개념으로만 번역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한일어 번역이 격조사의 격의미를 이용하여 조사생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용언의 기계번역에 있어 문제가 되는 동음이의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유형과 언어처리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로 기계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강용희(1996)는 기계번역문의 결과문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오역의 예와 그에 대한 대책을 고찰했다.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의 통사적, 어용론적 차이를 구

4) 본 논문에서 ‘일한어 번역’이라 함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경우를 말하며 ‘한일어 번역’은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했을 경우를 의미한다(이하동일).

체적으로 밝히면서 한국어의 부정문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형태소(안, 못)가 용언의 앞에 오는 차이점을 지적했다. 또 동음이의어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역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부정표현에 관한 대조연구는 이중부정표현을 포함해 한일 양 언어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사와 부조사와의 상호관계의 분석연구와 주로 부정문 안에 자주 사용되는 부조사의 역할과 의미연구도 다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부정소의 기능상의 상이점을 가장 많이 다루었다. 남풍현(1976)은 한국어의 부정은 ‘모르’, ‘없.’ 등의 어휘적 부정과 ‘아니’, ‘못’ 등의 통사적 부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통사적부정은 서술부정과 명사부정으로 구분했다.

김민수(1973)는 부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아니’를 거부의 자의부정, 둘째, ‘못’을 불가능의 타의부정, 셋째, 명령문에서의 ‘말다’, 넷째 ‘없다’, ‘모른다’의 반의어 개념으로 구분했다.

한국어에 있어 부정소 형태는 ‘안’, ‘못’ 등이 있으며 한국어의 부정소는 문장 안에서 서술어와 공기한다. 부정의 의미규정은 다양하며 학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하지만 본 연구의 분류방법은 김민수(1973)의 이론을 참조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부정문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부정표현(안, 못, 부정소로 하는 부정)이 어휘 속에 내재된 것과 부정표현부정소나 부정어휘(말다, 없다, 모르다, 아니다)를 포함하지 않은 수사적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다.

工藤真由美(2000)는 부정의 작용역과 부정의 초점에 관한 설명에서 부정문은 단순히 긍정문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부정은 복합적인 의미 기능영역이 있다고 논하고 있다.

또 「不親切だ、無関係だ、非常識だ」는 어휘적 부정형식, 「来ない、寒くない、親切ではない、学生ではない」는 의미적 부정형식이라 구분했다. 「けつして、ちっとも、さほど」와 같이 부정과 호응하는 형식은 진술부사와 그 외의 형식이 있으며, 「全部はよまなかった」「半分もよまなかった」와 같이 수량과 관련된 형식과 부정의 관계도 설명했다.

〈표 2〉 수량과 관련된 부정문

肯定	否定
論文を一本書く	論文を一本も書かない
ひとかけら残っている	ひとかけらも残っていない
車が一台通った	車一台も通らなかった
この部屋には十人入れる	この部屋には十人も入れない
一時間かかる	一時間と(も) かからない
予定の半分書けた	予定の半分も書けなかった。

수량과 정도에 관한 형식과 부정에서 부정문과 부정표현의 관계와 완전부정문과 <は>, <ほど>를 동반했을 경우 불완전부정의 문제도 다루었다. 양과 정도가 적으면 양태부사에 <も>가 붙어 <완전부정>이 된다. 그러나 ‘ひとつ’, ‘指一本’과 같이 <も>를 동반하지 않고 <완전부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논하고 있다. 긍정문과 부정문과는 <모순관계>를 이루지만 위의 논문에서는 <존재량>, <지속량>, <빈도>, <정도비율>에 관계된 형식과 부정과의 관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술했다.

한일의 부정문에 관한 대조연구는 부정문과 부정표현의 의미와 용법을 대조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대조연구를 거듭하면서 이론을 정립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조연구의 분석 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일본어ST와 한국어TT를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ST와 일본어TT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일본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직면하는 것이 한국어를 일본어로 작문하거나 번역할 경우이며 이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특히 작문과 해석을 할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는 부정문과 부정의 표현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용희(1996)의 한국어의 부정문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형태소(안, 못)가 용언의 앞에 오는 차이점을 지적한 점과 김민수(1973)는 부정을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였다.

분석 자료는 신문사설(동아일보, 중앙일보)의 한 달씩 분량을 발췌하여 한국어 ST와 일본어TT의 부정문과 부정표현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ST에서

부정문과 TT에서 부정문을 발췌하였다. 범위는 서술어뿐 아니라 부정표현 (안, 못, 부정소로 하는 부정)이 어휘 속에 내재된 것과 부정표현부정소나 부정어휘 (말다, 없다, 모르다, 아니다) 를 포함한 문장으로 제한한다. 부정의 의미를 갖는 수사적 표현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발췌한 분석자료 부정문을 각각 기계번역문과 번역사의 번역문의 부정표현에 주목하여 비교분석했다.

신문사실을 선정한 이유는 구어체에 비해 문장이 정형화되어 있고 부정문의 유형을 분류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기계번역과 번역사에 의한 번역의 한일대조를 통해 대응관계와 특징을 알아보고 상관관계에 따른 유사성과 상이점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번역전략에 도움이 되고 일본어교육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정문의 유형과 의미 분석

3.1 부정문의 형태구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2011년 12월15일부터 2012년 1월14일까지 한 달간 사설을 발췌해 총 문장 수 대비 부정문 수를 알아보았다.

〈표 3〉 신문사별 부정문 수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어	일본어 (기계번역)	일본어 (수정번역)	한국어	일본어 (기계번역)	일본어 (수정번역)
사설 수	26	26	26	28	28	28
부정문 수 (%)	304 (52.2%)	332 (56.9%)	352 (60.0%)	450 (48.9%)	460 (50.0%)	498 (69.9%)
총 문장 수	582	583	586	920	920	712

<표3>의 부정문의 수는 양 신문사 모두 한국어ST의 문장 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부정문이며 한국어 ST보다 TT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어의 ‘-해야한다’에 대응하는 표현 ‘-なければならぬ’의 이중부정표현으로 번역된 것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4> 부정문의 번역유형과 빈도

유형분류	일본어 (기계번역)	일본어 (수정번역)	빈도율(%)	
			동아일보	중앙일보
- 없는 - 없다	-ない - (が) ない	-ない - (は) ない	36.6%	38.5%
안- -않는 -아니	술어부정형 -なくて -しない	술어부정형 -ないので -ない	53.3%	44.0%
못	-できない	술어부정형	6.6%	13.7%
-지 -않다	-なくない	-なくはない	3.3%	3.7%

<표4>에서 <-없는, -없다>’는 부정문에 쓰이는 ‘ない’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있다’의 반대개념인 ‘없다’로 비존재와 부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3) 내년 4월15일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아 실체도 없는 강성대국진입을 선언하겠지만 그의 얼굴에 중국 청조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모습 이 어른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동아 2011.12.29)

- a. 来年4月15日キム・イルソンの100回誕生日を迎えて実体もない強盛大
国進入を宣言するだろうが彼の顔に中国青鳥の最後の皇帝ふうとこ
れの姿がちらつくのは仕方ない。
- b. 来年4月15日の金主席の100回目の誕生日に、実体もない「
強盛大國進入」を宣言するだろうが、金正恩氏の顔に中国清朝の最
後の皇帝、溥儀の姿がだぶる。

(4) 따라서 김위원장의 사망은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이슈에 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 (중앙 2011.12.20)

- a. したがってキム委員長の死亡は韓半島を囲んだすべてのイシューに対す
る変化を招くことに間違いない。

b. したがって、金書記の死去は、韓半島をめぐるあらゆるいシューに変化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はずだ。

(3), (4)는 ST가 부정문인데 번역사의 TT (8)b, (9)b는 긍정문으로 번역되어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해석이라 할 수 있다. 기계번역인 (3)a, (4)a는 앞의 문맥과 상관없이 그대로 직역되었다.

부정표현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그 의미도 다양하다. 또한 단락에 많은 부정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문장전체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번역해 주어야 한다.

<안, -아니, -아니다>는 명사의 부정형태가 많다. 존재의 유무를 표현하기 보다는 ‘거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5) 일부 사립대들이 신입생 수를 부풀리기 위해 지원 학과가 안 적힌 ‘백지 원서’를 수험생들에게 뿌리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동점자를 늘려 모두 합격시키거나 교직원 또는 교직원 가족을 합격자로 등록시켰다.
(중앙 2012.01.06)

- a. 一部私立大らが新入生数を膨らませるために志願学科が書かれなかった‘白紙願書’を受験生らにばら撒いて、面接点数を操作して同点者を増やして全部合格させたり教職員または、教職員家族を合格者で登録させた。
- b. 一部の私立大が新入生の数を水増しするために、志願学科が無記入の“白紙願書”を受験生にばら撒いたほか、面接点数を操作して同点者を増やし全員を合格させたり、教職員または教職員の家族を合格者として登録したりした。

(6) 선거철이 아닌 때에도 국정원 고위 인사들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 자리를 보전하고 승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일상화됐다고 한다.
(중앙 2011.12.22)

- a. 選挙の時節ではない時にも国家情報院高位要人らが有力政治家たちにコネを作って席を保全して昇進するために努めることが日常化されたという。
- b. 選挙の時期でなくても、国情院の職員が有力政治家に接近し、地位の保全や昇進のために注力するのが日常化しているという。

(7) 설거지를 안 해서 그릇을 깨지 않은 것이나, 운전을 하지 않아서 사고를 내지 않은 것은 실력이 아니다. 부작위로 인한 무결점이 남다른 자질이 될 수는 없다. (동아 2012.01.03)

- a. 皿洗いをしなくて器を破らないのと、運転をしないので事故を起こさないのは実力でない。
不作為による無欠点が格別な資質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
- b. 皿洗いをしないので皿を割らないということ、運転をしないので事故を起こさないということは、実力ではない。不作為による無欠点が「格別な資質」にはなり得ない。

(8) 박 의장은 돈 봉투 전달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고 의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무조건 잡아챌다고 끝날 일은 아니다.

(동아 2012.01.10)

- a. 박議長はお金封筒前月事実を否認しているけれど議員の陳述がだいぶ具体的なので無条件取り払うと終わることではない。
- b. 朴議長は、現金入り封筒を渡した事実を否定しているが、高議員の供述が具体的なので、ただ否定したからといって終わるものではない。

(9) 하지만 무조건 억누른다고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다. (중앙 2012.01.04)

- a. だが、無条件押さえ込むと物価が捕えられるのではない。
- b. だが、無条件で押さえ込めば物価が安定するのではない。

(10) 정부는 남북의 교류와 화해를 위한 단체의 조문을 추가로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중북단체의 조문 허용은 안 될 일이다.

(동아 2011.12.24)

- a. 政府は南北の交流と和解のための団体の弔問を追加で許容することもできるだろうが鐘北端体の弔問許容はならないことだ。
- b. 政府は、南北の交流と和解のための団体の弔問を追加許可することもできるが、従北団体の弔問許可は許されない。

<아니다>는 거부, 부정을 의미하는 ‘-ではない’로 번역되었다. 다만 (5)의 ‘지원 학과가 안 적힌 백지 원서’를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를 사용하여 ‘志願学科が無記入の白紙願書’로 번역하였다. (10)의 ‘허용은 안 될 일이다’는 ‘許可は許されない’의 가능형으로 불가, 거부의 의미를 가진다. 기계번역에서는

(8)의 ‘ものでない’와 ‘ことでない’의 차이를 판별하지 못했다.

<-못>은 ‘타의부정’의 의미가 있으며 서술어 앞에 오며 술어 가능형의 형태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12), (13)에서와 같이 주로 목적어가 부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11)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후계자에 대해 실망할 수 있다. (중앙 2011.12.21)

- a. そのような期待がみたま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ならば北朝鮮住民たちは後継者に対して失望することができる。
- b. そのような期待が満たされないならば北朝鮮の住民たちは後継者に対し失望することになる。

(12)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물론이요, 스스로 나이 대접 받으려는 맘을 못 버리면 힘들어진다. (중앙 2011.12.28)

- a. 高齢者に対する社会的差別は勿論で、自ら年齢もてなしを受けようとする気持ちを捨てられなければ難くなる。
- b. 高齢者に対する社会的な差別はもちろん、自ら年齢によるもてなしを受けようとする考えを捨てられなければ苦しくなる。

(13) 법이 사전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한 데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중앙 2011.12.30)

- a. 法が事前選挙運動をできないようにしたところには正当な理由がある
- b. 法が事前選挙運動を禁止したのは正当な理由がある。

<-지 -않다>는 주로 ‘상태’를 나타낸다. (14)의 ST는 ‘받지도 않은 사람’의 상태를 표현했지만 (14)b는 ‘受けることもない人’로 상태라기보다는 경험의 의미 표현이다. (14)과 (15)에서와 같이 이중부정표현도 자주 사용되어 ‘강조’의 의미로 강한 긍정을 표현한다.

(14) 정치에서 단련되지도, 검증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국민에게 검증할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국민에 대한 눈속임이다. (동아 2012.01.03)

- a. 政治で鍛練されることも、検証を受けることもしない人が国民に検証す

る時間をまともに与えないのはひどく話せば国民に対する詐欺だ。

- b. 政治の鍛練を受けたことも、検証を受けることもない人が国民に検証の時間を十分に与えないことは、厳しく言えば国民に対する詐欺だ。

(15) 비록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전략대화의 일환이긴 하지만 김 위원장 영결식을 하루 앞둔 미묘한 시기에 한국과 중국 고위 관리가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자체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다. (중앙 2011.12.28)

- a. たとえ毎年一回ごと開かれる戦略対話の一環ではあるがキム委員長告別式を一日前にした微妙な時期に韓国と中国高官がポスト キム・ジョンイル時代の韓半島情勢に対して意見を交換したという自体で意味が小さくないと見る。
- b. 毎年1回開かれる戦略対話の一環ではあるが、金総書記の告別式を翌日に控えた微妙な時期に韓国と中国の高官がポスト金正日時代の韓半島情勢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ということ自体で意味は小さいないだろう。

3.2 부정문의 의미 분석

부정문의 유형은 부정소에 의한 부정, 비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많은 부정문을 포함한 문장의 경우 앞 뒤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정확히 번역해야 한다. 예문(16)의 경우는 ST와 TT의 긍정문과 부정문이 거의 일치한다.

(16)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우리 입장에서 대중외교가 쉬울 리 없다. 어제오늘의 문체도 아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대중외교가 딱 막힌 적은 없다. 중국의 힘이 커진 탓도 있지만 이 정부 들어 지나치게 미국 중심의 편중 외교를 해온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중앙 2011.12.22)

- a. 米国と中国間に挟まった私たちの立場で対中外交がやさいはずがない。
昨日今日の問題でもない。たとしても今のように対中外交がぎっしり詰まったことはない。
中国の力が大きくなったためもあるがこの政府に入って過度に米国中心の偏重外交をしてきた点も無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

- b. 米国と中国に挟まった韓国の立場で対中外交がやさしいはずがない。きのうきょうの問題でもない。だとしてもいまのように対中外交が手詰まりになったことはない。中国の力が大きくなったためもあるが、現政権になって過度に米国中心の偏重外交をしてきた点も無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

그러나 ST가 긍정문이어도 TT가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 ‘-야 한다’는 기계번역과 번역사 모두 번역 형태상 이중부정문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번역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있는 ‘-야 한다’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なければならぬ’로 번역되며 기계번역도 잘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7) 무엇보다 남북한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공존의 계기로 붙들어 매어야 한다. (중앙 2011.12.20)
- a. 何より韓国、北朝鮮はキム委員長の死亡を真の意味での新しい共存の契機に縛り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
- b. 何よりも南北は、金総書記の死去を真の意味での新しい共存の契機にしなければならぬ。
- (18) 심한 경우 퇴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앙 2012.1.06)
- a. 激しい場合、退出手続き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
- b. 最悪の場合、廃校手続き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
- (19) 김정일의 사망은 반인륜체제 종식의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동아 2011.12.21)
- a. キム・ジョンイルの死亡は反倫理体制終息の出発線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 b. 金総書記の死去は、反人倫体制終息の出発点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 (20) 계파 갈등은 완전히 날려버릴 일이다. 친박(친박근혜)계는 다음 주로 예정된 계파해체 선언을 계기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동아 2011.12.17)
- a. 親パク(親パク・クネ)系統は来週に予定された派閥解体宣言を契機

に先に模範を見せるべきだ。

- b. 派閥の葛藤は完全に吹き飛ばさなければならない。親朴（親朴権恵）系は来週予定された派閥解体宣言を機に模範を示す必要がある。

단, 예문(20)과 같이 기계번역의 ‘-べきだ’를 번역사도, ‘-必要がある’로 번역을 한 것은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계번역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일본인의 특성이 이중부정문을 통해 잘 나타난 예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강한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의 경우 ST가 긍정문 형태인데 TT가 부정문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강한 확신이나 확실한 추측 등의 의미를 갖는 문장이 긍정문일 경우 번역사는 추측을 나타내는 부정문으로 변환했다.

- (21) 자칫 김정은 등 새 지도부를 향해 걸잡을 수 없는 민심 이탈이 불거질 수 있다. (중앙 2011.12.21)

- a. ややもするとキム・ジョンウンなど新しい指導部に向かって手のほどこしような民心離脱がふくらむことができる。
b. ややもすれば金正恩ら新指導部に向かい手がつけられないほどの民心離脱が起きるかもしれない。

- (22) 상대방으로선 별로 해 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는 질문일 게다.

(중앙 2011.12.28)

- a. 相手方としては別にしてみたことも、受けてみたこともない質問だろう。
b. 相手にしてみると、尋ねたことも、受けたこともない質問かもしれない。

- (23) 원가에 못 미치는 왜곡된 전력요금체계가 과수요를 부른 근본요인이지만 올해 전기요금을 두 차례에 걸쳐 9.7% 인상한 터라 또 인상하기는 어렵다. (동아 2011.12.16)

- a. 原価に至らないわい曲された電力料金体系がやり過ぎた手要を呼んだ根本要因だが今年電気料金を二度にかけて9.7%引き上げたの場所とまた引き上げることは難しい。
b. 原価にも及ばない歪んだ電力料金体系が過需要を呼ぶ根本的な要因だが、今年、電気料金を2度にわたって9.7%引き上げたところなので、さらに引き上げることはできない。

한국어 ‘없다’ 앞에 쓰인 조사는 ‘가’, ‘이’, ‘는’, ‘도’ 등 다양하고 자유롭게 사용된 반면 TT의 ‘ない’ 앞에 쓰인 조사 ‘は’, ‘も’가 특정한 대상을 강조하는 부조사로서 쓰였다. (27)와 같은 경우 ‘생각이 없다’를 ‘つもりがない’로 번역하면 표현이 어색해진다. 기계번역에서는 문법적인 조사 사용과 의미파악에 의한 번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번역을 하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4) 김정은 체제의 내부 변화를 짐작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없는데 남북 관계 리셋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동아 2011.12.24)
- キム・ジョンウン体制の内部変化を察するほどの何の端緒(糸口)もないのに南北関係リセットを取り上げ論じるのは時期尚早だ。
 - 金正恩体制の内部変化を推し量るだけの何の端緒もないのに「南北関係リセット」を論じることは時期尚早だ。
- (25) 기득권층의 강력한 보위 속에 있으며, 실력부터 성격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중앙 2011.12.28)
- 既得権層の強力な保衛中であって、実力から性格まで知らされたことが殆どない。
 - 既得権層の強力な保衛の中において、実力から性格まで知られている内容はほとんどない。
- (26) 김정일의 사망은 반인륜체제 종식의 출발선이 돼야 한다. 북이 김정일식 공포독재체제를 고수해서는 미래가 없다. (동아 2011.12.21)
- キム・ジョンイルの死亡は反倫理体制終息の出発線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北がキム・ジョンイル式恐怖独裁体制を守っては未来がない。
 - 金総書記の死去は、反人倫体制終息の出発点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北朝鮮が、金正日式恐怖独裁体制を固守しては未来はない。
- (27) 그러나 정부는 북한과 논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 (중앙 2012.01.02)
- しかし政府は北朝鮮と論争を行うつもりがない。
 - しかし韓国政府は北朝鮮と論争を行うつもりはない。

그러나 관용적인 표현일 경우는 의미상으로 등가성을 살려 번역되기도 한

다. 따라서 문장단위의 의미파악이 중요하다. 이 경우 번역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6)에서 ‘맥을 못추다’를 ‘きわめて弱い’로 의미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번역하였다. 또 (27)의 ‘큰코다친다는 소리다’를 (27)a에서 ‘ひどい目にあうという声だ’라는 번역오류도 발견된다. 아직 관용적인 표현은 기계번역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28)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대학을 추려내기 위해 활용해온 잣대가 대학들의 탈법 행태에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2012.01.06)

- a. 教育科学技術部が不良大学を選び出すために活用してきた定規が大鶴らの違法形態にすっかり参っていると明らかになった。
- b. 教育科学技術部（以下、教科部）が経営不良大学をふるい分けようと活用して来たものだが、大学の脱法行動にきわめて弱いことが分かった。

(29) 기득권층의 강력한 보위 속에 있으며, 실력부터 성격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앞잡아보다 자칫 큰 코 다친다는 소리다.

(중앙 2011.12.28)

- a. 既得権層の強力な保衛中であって、実力から性格まで知らされたことが殆どない。侮ってみてややもするとひどい目にあうという声だ。
- b. 既得権層の強力な保衛の中において、実力から性格まで知られている内容はほとんどない。甘く見ていると大変な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

그 외 <밖에 없다 -수 없다>는 서술어와 항상 공기하며 가능성의 유무를 의미하는 문장을 만든다.

(30) 한 표가 아쉬운 당권 주자들은 이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동아 2012.01.14)

- a. 一票が惜しい党権走者らはこれらの顔色をうかがうほかはない。
- b. 1票でも多く票を集めたい候補たちは、彼らの意向を気にせざるを得ない。

(31) 이런 상황에서 공정 경선 구호를 외친다면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동아 2012.01.11)

- a. こういう状況で工程選挙戦スローガンを叫ぶならば現実を分からない卓上空論という話を聞くほかはない。
- b. このような状況で、「公正な予備選挙」をうたい文句にしたなら、現実を知らない机上の空論という批判を免れ難い。

(32) 이 때문에 대학들은 어떻게든 지표 값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동아 2012.01.06)

- a. このために大学らはどうにか指標値段を高めるために血眼になるほかはない。
- b. このため、大学はどうしても指標数値を高めるために血眼にならざるを得ない。

(30)와 (32)의 ‘-수밖에 없다’의 표현은 ‘-ざるを得ない’로 번역되어 어쩔 수 없는 필연의 의미이며 각각 문장 내의 의미에 따라 불가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기계번역의 ‘-수밖에 없다’는 ‘-ほかはない’로 일괄 번역되었다.

이상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부정문의 유형과 의미 분류를 번역문과의 대조를 통해 상이점을 알아보았다. 1차 번역단계인 기계번역문에서 등가성을 살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 안에서 의미를 분류하는 작업은 용이하다. 이러한 분류가 절대적일 수 없으며 어휘적, 문법적 시각 등 다른 시각에서의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번역에 따라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해 둔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의 부정문을 일본어로 번역했을 경우 기계번역문과 수정된 번역사의 번역문의 번역양상을 비교하고 용례분석을 통해 한일 양국어의 부정문의 의미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신문사설(동아일보, 중앙일보)의 한 달씩 분량을 발췌하여 한국어 ST과 일본어 TT의 부정문과 부정표현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부정문의 수는 양 신문사 모두 한국어ST 문장 수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부정문이며 한국어 ST보다 TT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없는, -없다>’는 부정문에 쓰이는 ‘ない’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있다’의 반대개념인 ‘없다’로 비존재와 부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아니다>는 거부, 부정을 의미하는 ‘-ではない’로 번역되었다. 기계번역에 서는 ‘ものでない’와 ‘ことでない’의 차이를 판별하지 못했다.

<-지 -않다>는 주로 ‘상태’를 나타낸다. 이중부정표현도 자주 사용되어 ‘강조’의 의미로 강한 긍정을 표현한다.

부정문의 유형은 부정소에 의한 부정, 비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많은 부정문을 포함한 문장의 경우 앞 뒤의 문장의 의미를 파악 하여 정확히 번역해야 한다.

ST가 긍정문이어도 TT가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 ‘-야 한다’는 기계번역과 번역사 모두 번역 형태상 이중부정문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번역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있는 ‘-야 한다’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なければならぬ’로 번역되며 기계번역도 잘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없다’ 앞에 쓰인 조사는 ‘가’, ‘이’, ‘는’, ‘도’ 등 다양하고 자유롭게 사용된 반면 TT의 ‘ない’앞에 쓰인 조사 ‘は’, ‘も’가 특정한 대상을 강조하는 부조사로서 쓰였다.

기계번역에서는 문법적인 조사 사용과 의미파악에 의한 번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번역을 하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용적인 표현은 의미상으로 등가성을 살려 번역되기도 한다. 기계번역에 있어 번역오류도 다수 발견되어 문장단위의 의미파악이 중요하다. 이 경우 번역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직 관용적인 표현은 기계번역에서 해결 될 수 없는 부분이다. ST의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번역하면 형태상 부정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긍정의 의미를 갖기도 하며 관용적인 표현일 경우는 의미를 파악해 등가성을 살려 번역되어야 한다.

기계번역시스템은 현재 거의 실용단계에 와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적, 형태적으로 아주 유사해 기계번역의 대상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 비교적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오류가 많고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기계번역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계번역은 기술정보 분야 등에 많은 활약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어떤 구성요소가 부정의 목적이 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에서의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ない’를 포함하고 있지만 부정 이외의 기능을 담당하는 표현이라든가 부정문과 호응하는 부사의 대조연구 등은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또한 기계번역을 살펴보면 부정문외에 또 다른 문제점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기계번역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활용하면 번역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계번역에 관한 연구는 번역전략과 기술문서 작성, 일본어학습자의 작문교육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용희(1996) 「韓·日기계번역에 있어서의 誤訳 및 고찰」,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논문집』
- 김민수(1973) 「국어문법론」, 『일조각』, 281-283.
- 김영민(2004) 「부정표현의 교육상의 문제점」, 『일어일문학 연구』, 48(1): 221-40.
- 김은애(2009) 「일본어 이중부정표현에 대한 한국어 표현-한국어 번역패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연구』, 70(1): 19-35.
- 김진원, 최준기 옮김(2006) 『번역의 이론과 방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 남풍현(1976) 「국어 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3: 55-81.
- 신석기(2007) 「한국과 일본의 기계번역 예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어의 일본어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발표자료집』.
- 이근희(2004) 「번역의 변환(Shift)현상에 관한 소고(정보제공 목적의 텍스트중심)」, 『번역학연구』 5(2): 113-44.
- 함수진, 류수현(2000) 「기술문서의 한일기계번역 문제에 대한 통제언어연구 - ‘되다’ 구문의 기계번역수월성 제고를 위한 통제규칙」, 『번역학연구』 11(4): 191-238.
- 工藤真由美(2000) 「否定の表現」, 『時・否定の取り立て』 岩波書店.
- 成田一(1996) 「言語類型と機械翻訳」, 『自然言語処理』, 114-21.

[분석자료]

날짜	동아일보	
	한국어	일본어
2012.01.14	모바일 팬클럽 정치 민주주의 위기 키울 수 있다	モバイルファンクラブ政治は民主主義の危機を増幅させかねない
2012.01.13	전교조 간부 인권조례로 학생보호 어렵다	教組幹部「人権条例で学生の保護は難しい」
2012.01.12	보수해야할 박정희, 비려야할 박정희	補修しなければならない朴正熙、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朴正熙
2012.01.11	한나라당 쇠신하려면 신인 영입 문 활짝 열라	ハンナラ党、刷新に向け新人の登用門を果敢に広げるべきだ
2012.01.10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하고 조사 받으라	朴熺太国会議長は辞任して捜査を受けるべきだ
2012.01.07	정봉주 팬클럽이 민주당 지도부 뽑는 현실	鄭鳳株氏のファンクラブが民主党執行部を選ぶ現実
2012.01.06	한나라당은 민주당화, 민주당은 민노당화	ハンナラ党は民主党化、民主党は民主労働党化
2012.01.05	검경, 국민 앞에 이 무슨 추태인가	検察と警察は国民の前で何たる醜態か
2012.01.04	제복이 자랑스러운 사람들	制服が誇らしい人たち
2012.01.03	안철수 교수, 정치 할지 말지 이제는 말할 때	政治をするのかしないのか、安哲秀氏ははっきり言うべきだ
2012.01.02	부자세와 복지예산 팽튀기 후유증 생각해야	金持ち税と福祉予算の膨らみもたらす後遺症を考えるべきだ
	깨어 있는 국민이랴야 산다	覚醒した国民になることが求められる
2011.12.29	SNS가 선거 민의를 왜곡케 해선 안 된다	S N Sが選挙の民意を歪曲させるようにはならない
2011.12.28	김일성 김정일 지상최대 궁전 묘 세계에 부끄럽다	金日成親子の史上最大の「宮殿墓」、世界に恥
2011.12.27	한나라당 스몰 비대위	ハンナラ党「スモール非対委」
2011.12.26	몇 만 명 조문 허용하면 북이 놀라 문 닫을 텐데	韓国から数万人が弔問すれば、北も驚いて閉めるはずだが...
2011.12.25	정부는 북이 안 변해도 대북정책 바꿀 건가	政府は北が変わっていなくても対北政策を変えるのか
2011.12.23	북도, 종북세력도 조문 갈등 부추기지 마라	北朝鮮も従北勢力も「弔問対立」を煽るな
2011.12.22	김일성 왕조 3대김정은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金日成王朝3代目、金正恩時代はどうなるのか
2011.12.21	전략적 동반자 한중정상 간의 불통	「戦略的パートナー」韓中首脳間の不通
2011.12.20	경제와 시장, 북한 변수에 과민반응할 일 이	経済と市場、北朝鮮情勢に過剰反応する

	니다	ことはない
2011.12.19	김정일 사망, 반인륜 체제 종식의 출발선이 다	金総書記の死は反倫理体制終息の出発点だ
2011.12.18	18대 대통령 선거 366일 전	第18代大統領選まで366日
2011.12.16	여비대위 성패, 비박및 외부인사가 가른다	与党非常対策委の成否は非朴と外部人材にかかっている
2011.12.15	겨울 전력비상 범국민적 절전절실하다	冬の電力非常事態、国民的な節電が切実だ
날짜	중앙일보	
	한국어	일본어
2012.01.13	담배를 아예 유해물질로 관리하자	タバコを初めから有害物質として管理しよう
2012.01.12	“아직도 눈 뜨고 잔다”는 삼성전자	「いまでも目を開けて寝る」というサムスン電子
2012.01.11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한·중 FTA	国の未来がかかった韓中FTA
2012.01.10	정은의 허장성세	金正恩の虚勢
2012.01.09	단체장 입맛 따라 스포츠팀 해체해서야	団体主の好みでスポーツチームを解体してはいけない
2012.01.06	부실대학, 현장에서 확인하라	経営不良大学は現場で確認せよ
2012.01.05	김정일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 바란다	金正日後の初の韓中首脳会談に望む
2012.01.04	물가 안정은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物価安定は正攻法でアプローチすべき
2012.01.03	과학 영재들을 의대로 몰아넣는 사회	韓国社会、ノーベル科学賞より急ぐべきことは…
2012.01.02	북한, 대남 비난에 매달릴 때 아니다	北朝鮮、対南非難にしがみつ়く時ではない
2011.12.30	SNS 선거운동 인정은 시대의 흐름이다	ネット選挙運動認定は時代の流れだ
2011.12.28	김정일 이후 한·중 전략적 소통의 방향	金正日後の韓中戦略的疎通の方向
2011.12.27	‘김정일 분향소’로 국론 분열시키지 말라	金正日の焼香所で国論分裂させるな
2011.12.26	김정은, 선군보다 선민이 정답이다	金正恩、先軍より先民が正答だ
2011.12.23	메디컬 코리아의 꿈	メディカル코리아の夢
2011.12.22	대북 정보력 높일 획기적 조치 필요하다	対北朝鮮情報力を高める画期的な措置が必要
2011.12.22	한국과 중국, 전략적 동반자 맞나	韓国と中国は本当に戦略的パートナーなのか
2011.12.21	대북 전략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때	対北朝鮮戦略を新たに立て直す時だ
2011.12.20	김정일 사망 … 차분하고 초당적으로 대처하자	金正日の死去…沈着かつ超党派的に対処しよう
2011.12.20	4강 개입 가능성 경계한다	周辺4強介入の可能性を警戒する
2011.12.19	있는 결단 필요한 위안부 문제	勇氣ある決断が必要な慰安婦問題
2011.12.15	중군위안부 수요집회 1000회, 변하지 않는 일본	従軍慰安婦水曜集会1000回、変わらない日本

[Abstract]

**The aspects of Korean and Japanese translation
appeared in machine translation
—negative expression orientation—**

Choi Youngsoo
(Woosong University)

This study has analyzed comparisons of two countries' negative expressions by examining translation patterns and usage analysis between, and translation script modified by professional translator when Korean negation and negative expressions were translated into Japanese.

The machine transl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ompare to other languages, shows relatively high accuracy as similarity between grammars and structures of two languages yet, it is true that numerous error occurs, and a lot more to be modified and improved.

Particularly in case of large quantity of translations, such as technical document translation, newspaper articles, are primarily translated by machine translation and edited by professional translators for partial errors.

In this case, this might lead to devaluation of a quality of translations with monotonous expressions. It is also hard to expect high-quality translations as it was influenced by machine translation rather than original translations.

Japanese tends to prefer indirect expressions as they usually avoid direct expressions.

The negative sentences from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can aptly changeable by modifying predicate into negative forms. However, Korean and Japanese are different as its frequency, usages and structure of negative sentence according to an in-depth research.

This study examined the comparative analysis concentrated on negative sentences and expressions of Korean and Japanese from newspaper editorials (Dong-A, Joong-Ang) extracted for a month quantity each. And this study not only excerpted negative sentences from original and translation but also selected the sentences contain negation and negative expression in negative sentences as well as predicates. Also this is focused on negative expressions between machine translations and translator translations from extracted negative sentences.

Since machine translation has certain rules, it translated regardless of difference in means. It is highly expected to see maximum effect and minimize time and effort consumed in translation by improving and solving the problem of machine translation. This study on machine translation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translation strategy, technical document completions and reference of Japanese composition for purpose of education.

▶ Key Words: negative expression, machine translations, professional translator, technical document translation

최영수

우송대학교 겸임교수(충남대 박사과정)

yschekr@yahoo.co.kr

관심분야: 한일 통번역, 일본어교육, 어휘론

논문투고일: 2012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18일